국내 양계 산업의 경기는?

최근 국내 양계산업의 경기는 보기 드문 호황국면이다. 2004년 2월 중순 이후부터 현재까지 호황을 유지하고 있으니 1년 이상을 지속한 셈이다. 그러나 호황을 만들어 준 각각의 요인들이 변화되고 있어 향후 양계산업의 앞날이 불안해지고 있다.

이에 이러한 호황기가 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 분석해 보고 향후 불황을 대비하는 지혜를 모아야 겠다.

호황기가 될 수 있었던 요인

1. 미국산, 태국산 닭고기의 수입 중단

2004년 1월~2월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으로 1997년 닭고기 수입개방 조치 이후 2003년까지 가장 많은 닭고기를 수입해왔던 미국산, 태국산 닭고기가 수입 중단되었다. 과거 국내 닭고기 소비 시장의 25% 수준에 달했던 미국산, 태국산 닭고기는 현재까지 수입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종식으로 수출재개가 임박해 있으며, 태국은 아직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문제로 수출재개가 어려운 상황이나 열처리 가공육의 형태로 수출을 하고 있다(품질 문제로 물량이 크게 늘고 있지는 못함).

현재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수입닭고기는 유럽산 닭고기(주 물량 덴마크) 위주로 물량이 과거 수입닭고기의 1/2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가격 또한 고가격으로 국내산 닭고기 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 변화 요인 : 미국산,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임박

가. 미국산 닭고기

수입에 대한 모든 제한 요소가 해제되어 있는 상황으로 국내 도착이 초읽기에 도달한 상황임.

나. 브라질산 닭고기

세계 2위 생산국이며 세계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의 닭고기는 저 가격, 고 품질을 무기로 우리나라 닭고기 시장을 위협하고 있음. 수입시 미국산보다 더욱 국내시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입도 임박한 상황임.

2) 대책 : 수입산 닭고기와 국내산 닭고기의 차별화

가. 닭고기 포장 유통(국내산)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2007년부터 닭고기 포장유통이 의무화될 예정이나 조속히 앞당겨 실시되어야 할 것임.

나.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지제도 도입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식품위생법 개정 법률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범 업계 차원의 노력이 절실함(양돈, 축우 관련 단체 공조 노력).

다. 국내산 냉장육과 수입 냉동육의 차별화

냉동육의 냉장육 둔갑 유통 방지는 수입 냉동육이 국내산 냉장육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2. 종계, 종란, 병아리 등 생산량 감축

2003년 12월 15일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2002년 6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장기 불경기에 허덕이던 양계업계를 실로 벼랑 끝까지 몰고 갔다.

소비가 50%까지 격감하는 가운데 절대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양계업계는 자율적인 감축에 합의하고 종란, 병아리, 종계감축 등 생산량 감축을 실시했다. 특히 종계의 경우 2004년 1월~2월 51만수의 종계를 감축하여 일시적 수준이 아닌 상당기간 동안 생산량이 감축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1) 변화요인 : 환우 및 연장 생산의 증가, 백세미 생산량의 급증

가. 환우 및 연장 생산량의 증가

병아리 부족 상황에 따른 종계 환우 및 연장 생산이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병아리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나. 백세미 생산량의 급증

백세미 생산량의 급증은 현재 우리업계에서 계륵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다. 또한 통제되지 않는 백세미의 생산 Capacity가 더욱 문제이며, 산란계를 모계로 하고 있어 질병의 전파 위험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2) 대책 : 종계 및 백세미용 모계 등 생산 수단의 파악 및 질병 통제

가. 생산수단의 파악

현재 진행 중인 축산업 등록제와 종계 Data Base 구축 등으로 종계 및 백세미용 모계 등 모든 병아리 생산 수단은 통계 관리되어야 함. 이는 백세미용 모계로 전용되는 산란계의 경우 통계를 위한 기초 조사가 되고 있지 않아 더욱 필요한 실정임.

→ 생산량 파악을 위한 모든 생산 수단의 DB화 필요

→ 생산량 수준이 파악되어야 생산 조절을 할 수 있음.

나. 질병 통제

환우 및 연장 생산은 병아리 품질 관리 등

을 위해 통제 관리되어야 하며, 백세미 및 종계 등록되지 않는 모든 생산 수단은 종계 DB에 포함 파악하여 질병 발생시 조속히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만 함.

→ 종계장 · 부화장관리요령 내에 백세미, 토종닭 등 등록되지 않은 모든 병아리 생산수단은 반드시 포함 관리되어야 함.

→ 조류인플루엔자 등 닭 질병 발생시 조속한 초동 방역으로 조기에 문제를 해결 종식시킬 수 있음.

3. 원종계(GPS) 쿼터제 도입으로 생산량 통제

2003년 11월 8일 장기 불황기에 어렵게 이뤄낸 원종계(GPS) 자율 쿼터 합의는 2005년 현재 양계경기가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종계(PS) 수수가 급증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병아리가 계속 높은 가격을 지속하고 있어 환우, 연장생산, 백세미 급증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양계산업의 기초 생산 수단이 통제 수준 하에 있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일로 생각되고 있다.

1) 원종계 쿼터제의 증량 및 배정의 논란

가. 원종계 쿼터량 증량

원종계 쿼터량 증량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계의 전반적 분위기로 인식되고 있으나 증량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장기 불황 발생시 감축이 전제되어야 함.

나. 업체별 배정량 조정 문제

업체별 배정량 조정 문제는 업체별 이해상관이 걸린 첨예한 문제이나 종계(PS)를 사육하는 소비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임.

2) 원종계 쿼터제는 반드시 유지

양계산업은 조그마한 생산량 변화에도 가격의 등락이 심한 산업이다. 약 3%의 생산량 변화가 10% 가격의 변동을 가지고 온다고 알려진 양계산업에 있어서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생산 수단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원종계(GPS) 쿼터는 생산수단의 기초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향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제도로 생각된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슬기롭게 보완하고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제도이다.

최근 원종계(GPS) 쿼터의 폐해를 지적하며 쿼터의 해체와 시장 경제 논리를 강조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2~3년 동안 많은 수업료를 치르며 배웠던 생산수단 조절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최 충 집 이사
(주)마니커 사육본부